

이달의 초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이태진·우선희·김지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인식

|이원진|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 격차

|김동진|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¹⁾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after COVID-19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 수준과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상황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평균 1~2명이었지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2.79명으로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움을 요청할 주 대상으로는 친척과 친구를 꼽았다. 직장 동료, 이웃,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꼽은 응답은 매우 저조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하에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미쳤다(여유진 외, 2021). 거리두기, 비

대면 문화의 확산,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고립감은 심화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우울 및 불안 그리고 만성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살도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왕유준, 오인수,

1) 이 글은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장과 6장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류신혜, 2021; Berg-Weger & Morley,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Grey, I et al., 2020; Xiao Xiao, H., Zhang, Y., Kong, D., Li, S., & Yang, N. 2020).

사회적 지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Brailovskaia, J., Rohmann, E., Bierhoff, H.W, Schillack, H. and Margraf, J., 2019). 이러한 속성을 지닌 사회적 지지는 재난과 질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미라, 김해숙, 2020; Langan, JC., Lavin, R., Wolgast, KA., Veenema, TG. 2017; Turner, 2015). 일례로 중국과 미국에서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이나 기타 정신적 상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21; Szkody E, Stearns M, Stanhope L, & McKinney C., 2021).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개인의 회복을 돕고, 자존감을 향상함으로써 개인을 둘러싼 각종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Cohen & Syme, 1985; Jemmott & Locke, 1984).

사회적 지지는 단지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질적인 측면 발전에도 기여한다(Cohen & Syme, 1985; Jemmott & Locke, 1984). 사회

통합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이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정해식 외, 2017, p. 39), 여기서 사회적 지지라는 전제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사회통합은 다양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상호 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그렇기에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신은경, 최정아, 2007; 이종섭, 모지환, 2013).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지지의 양극단에 있는 개념인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지지의 결핍 혹은 부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도는 201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2021년에는 34.1%로, 2019년보다 6.4%포인트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 즉 국민 3명 중 1명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2).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적 고립도가 더 높았는데, 고령층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통계청, 2022). 이처럼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사회적 관계의 위기 혹은 고립감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의 양상 및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집한 2017년 자료와 코로나19 이후 수집한 2021년, 2022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들은 해당 연도에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 및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함의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개념 및 측정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도구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 도움, 정서적 지지, 정보나 조언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최해경 외, 2020. p. 212).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다양하게 분류하였는데, 그중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정서적 지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랑받고 느끼는 것을 말하고, 정보적 지지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재화나 용역 등 물질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을 의미한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인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개인이 사회체계 내에서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으로 주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접촉 기간 및 빈도, 지리적 근접성 등을 통해 개인이 맺고 있는 다른 이와외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정창순, 이동형, 2019). 후자인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필요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조상리, 강명주, 2016; 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심리적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개인 혹은 집단과의 친밀감을 높이며, 스트레스 사건 및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보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Berkman, Glass, 2000; Tindle, R., Hemi, A., & Moustafa, A. A., 2022). 사회적 지지는 수혜자의 심리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배제 불안을 완화한다(백선숙, 조혜영, 2017; Jay, 2001).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신준섭, 이영분, 1999). 정리하면 사회적 지지는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위기 대처와 변화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며, 인생 주기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을 보호하여 평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게 돕는다(주유선, 2020).

특히 코로나19는 자신이 사회의 일부로서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게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양미라, 김해숙, 2020, p. 310). 실제로 과거 사스(SARS) 발생 당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바 있다(Xiao, H., Zhang, Y., Kong, D., Li, S., & Yang, N. 2020).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기능이 이번 코로나19 발생 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가족과 주변 친한 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개인은 우울 증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21). 미국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이나 걱정 등을 다소 완화하고 심리건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Szkody, E., Stearns, M., Stanhope, L., McKinney, C. 2021).

나. 변수의 측정 및 문항 구성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위해 2017년, 2021년, 2022년에 수

집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2022년에 분석한 자료를 일부 재인용하기도 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정책 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원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 문항은 2017년에 처음 포함되었고, 이후 다뤄지지 않다가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조사 문항에 포함되었다. 각 조사에 참가한 만 19~75세 이하의 전국 성인 남녀는 2017년 3839명, 2021년 3923명, 2022년 3994명이었다.

우선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는 특정한 세 가지 유형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지지의 유무, 즉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 유무 및 명수에 대해 묻는 문항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등이다. 이들 문항을 통해 응답자가 가족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여유진 외, 2021). 또한 상황별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이들에게 과연 몇 명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명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해당 응답을 1~2명, 3~4명, 5~9명, 그리고 10명 이상으로 서열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인지 묻는 문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문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한 변수는 사회통합 인식 관련 변수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을 측정하였다.

3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

가.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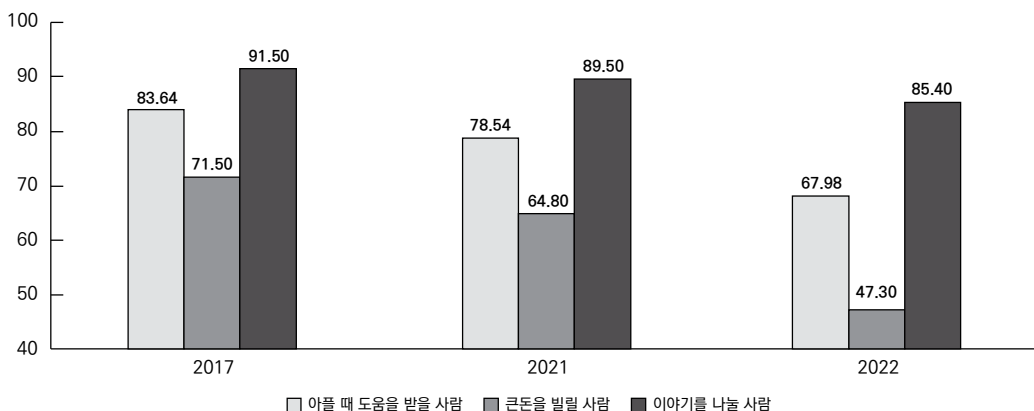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세 가지 유형, 즉,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 큰돈을 빌릴 사람, 그리고 우울하게

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몸이 아플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는 83.64%로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67.98%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큰돈을 빌릴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물어본 결과 코로나19 전인 2017년에는 71.50%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응답자의 절반도 안 되는 47.30%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는 91.54%로 매우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89.50%, 2022년에는 85.40%

[그림 1]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유형별 수준 변화

(단위: %)



주: 2017년에는 3839명, 2021년에는 3923명, 2022년에는 3944명.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p. 70, p. 72, p. 74.

로 소폭 낮아졌다. 정리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른 사회적지지 유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즉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년 차 되는 시점에 세 가지 유형의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다면 몇 명에게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우선 유형별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사람 유무를 물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사람, 그리고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

율은 65.6%였고, 큰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42.4%, 그리고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82.4%로 가장 많았다(이태진 외, 2022, p. 185).

다음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별 도움을 청할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보았다. 첫째,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은 평균 2.07명으로 나타났다. 1~2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33%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둘째, 큰돈을 급히 빌릴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1.87명이었다. 1~2명 정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표 1] 사회적 지지의 크기

(단위: %)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50.33	12.40	2.51	0.33
큰돈을 빌릴 사람	34.89	5.76	1.57	0.23
이야기 나눌 사람	43.36	27.18	10.37	1.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p. 187의 그림 6-4 일부 수정.

[표 2] 상황별 도움 요청자

(단위: %)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전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33.50	23.60	1.20	5.20	0.50	1.50	65.60
큰돈을 빌릴 사람	21.90	17.70	0.90	0.80	0.10	1.10	42.40
이야기 나눌 사람	7.00	66.20	3.10	5.30	0.20	0.70	82.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는 응답이 34.89%로 나타나 큰돈을 빌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셋째,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평균 2.79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1~2명이라는 응답은 43.36%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응답은 27.18%, 5~9명은 10.37%였다. 앞선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응답자가 각종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로 찾은 대상은 친척 아니면 친구였다.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플 때와 큰돈을 빌릴 때 친척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는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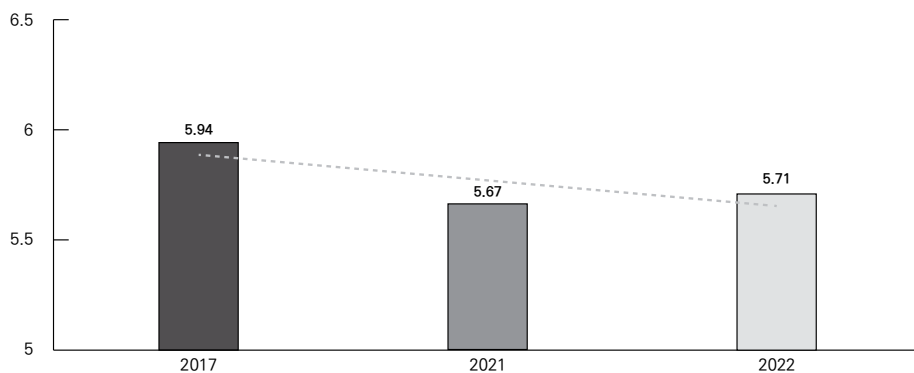
33.5%, 21.9%였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응답은 66.2%로 절반이 넘었다.

나.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 역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코로나 19 이전인 2017년 5.94점을 기록한 후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5.67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5.71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2022년 사회적 지지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여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사회적 지지의 수준

(단위: 점)



주: 2017년에는 3839명, 2021년에는 3923명, 2022년에는 3944명.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p. 6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여 2017년과 2021년 사이 사회적 지지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시기 동안인 2021년과 2022년 사이 사회적 지지 수준은 다시 높아지거나 더욱 낮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20~30대와 60~70대에서 사회적 지지가 소폭 상승한 바 있지만, 40~50대는 사회적 지지가 더욱 낮아진 바 있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임시·일용직

과 자영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지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상용직,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사회적 지지 수준이 소폭 반등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소득 4분위와 5분위는 사회적 지지가 다시 높아진 반면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계층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사이 본인의 계층이 하층이라고 여기는 집단과 중상층 상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은 사회적 지지가 낮아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

(단위:점)

구분		2017	2021	2022
전체		5.94	5.67	5.71
연령대	20~30대	6.30	5.91	6.03
	40~50대	5.83	5.63	5.62
	60~70대	5.50	5.35	5.3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26	5.89	6.03
	임시·일용직	5.37	5.29	5.09
	자영자	5.82	5.68	5.54
	실업자	5.30	4.95	4.97
	비경제활동인구	5.98	5.65	5.70
소득 5분위	1분위	5.20	5.08	5.04
	2분위	5.91	5.53	5.45
	3분위	6.06	5.75	5.74
	4분위	6.20	5.89	5.99
	5분위	6.47	6.12	6.35
주관적 계층	하층	4.66	4.72	4.63
	중하층	5.76	5.49	5.61
	중간층	6.39	6.00	6.03
	중상층 상층	6.86	6.62	6.39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67. 재인용.

졌다. 그렇지만 본인이 중하층 이라고 여기는 집단과 중간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의 사회적 지지는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본인이 중상층·상층이라고 여기는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응답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 인식 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가.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본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은 무려 7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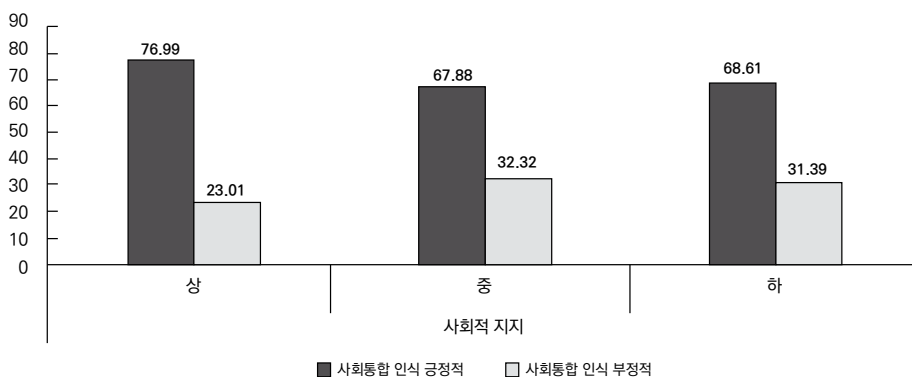
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긍정적인 인식인 68.61%보다 약 8%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본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은 31.39%가 부정적이었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본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부정적인 인식보다 약 8%포인트 더 높았다.

나.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시기인 2022년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 보았다. 첫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둘째,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

[그림 3] 사회적 지지 수준별 사회통합 인식

(단위: %)



주: 사회적 지지 '하'는 ①~④, 사회적 지지 '중'은 ⑤, 사회적 지지 '상'은 ⑥~⑩을 의미함.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패집단 및 대응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p. 192. 저자 재분석.

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인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층에 비해 중장년층이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용직에 비해 실업자가 사회통합 인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통합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사회통합 수

[표 4]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변수		전체 응답자		사회적 지지 수준				
				높은 집단 1)		낮은 집단 2)		
		B	β	B	β	B	β	
(상수)		3.324***		1.695***		1.477***		
사회적 지지		.416***	.170					
통제 변수	성별(ref = 남성)		.126*	.036	.028	.032	.109*	.111
	연령층 (ref = 청년층)	중장년층	-.143*	-.040	.013	.014	.027	.027
		노년층	.110	.023	.060	.047	.184*	.158
	소득분위 (ref = 1분위)	2분위	.068	.015	.014	.012	.014	.012
		3분위	.175	.041	.023	.022	.099	.078
		4분위	.108	.024	.000	.000	.169*	.108
		5분위	.192	.044	.057	.057	.028	.017
	경제활동 상태 (ref = 상용직)	임사·일용직	-.106	-.019	.001	.001	-.095	-.071
		고용주·자영자	-.134	-.031	-.026	-.023	-.034	-.028
		무급가족 종사자	-.226	-.018	-.081	-.025	-.093	-.027
		실업자	-.362*	-.042	-.055	-.021	.059	.035
		비경활	.126	.031	-.001	-.001	-.065	-.061
	adj R^2		.045(.042)		.006(-.001)		.039(.019)	
F값(유의도)		13.195***		.866		1.937		

주: *p<.05, **p<.01, ***p<.001.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17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5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원자료 분석.

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 4분위가 소득 1분위에 비해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5 나가며

이 글은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의 양상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객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 이후 낮아졌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1~2명이었다.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2.79명, 큰돈을 갑자기 빌려야 될 때 부탁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은 1.87명,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은 2.07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로움 증가 및 고립감 등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큰돈을 빌릴 사람이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지보다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로 볼 것인지 혹은 금전 거래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볼 것인지는 추후 탐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황별 도움을 요청하는 대

상으로는 주로 친척 및 친구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인 영역, 예를 들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기타 전문가를 통한 도움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의 결과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사회적 지지 수준이 반등한 집단이 존재하는 반면에 사회적 지지 수준이 반등하지 못하고 더욱 낮아진 집단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집단은 바로 후자이다. 이 집단은 40~50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소득 1~3분위 집단, 그리고 주관적 계층이 하층이거나 중상층·상층이다. 향후 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반등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전체 응답자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공통적 요인은 성별이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통합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차이점은 전체 응답자 중 중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청년에 비해 노년층이 사회통합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과 고령층이 사회적 고립도가 더 높다는 연구의 맥락이 이해를 돕는다(통계청, 2022). 이러한 현상이 과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축적된 어려움의 결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이 겪은 어려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그 외 두드러진 차이점은 전체 응답자 중 실업자가 상용직에 비해 사회통합 인식이 낮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사회통합 인식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후 전체 응답자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 간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증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하에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 증진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여유진 외, 2021)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

스 자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유형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 즉 청년층, 남성, 혹은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 등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청년과 같은 일부 집단은 사회적 보호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들 스스로 구축하거나 형성한 지지 체계가 없다면 사회적 고립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망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각종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도왔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요인이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큰 상흔을 주어 현재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공적인 영역에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당장 외부 개입이 필요한 집단 혹은 경계선에 놓인 집단 등을 분류하여 각각의 집단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에 놓일 집단을 사전에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례로 생애주기상 중장년층 및 노년층은 퇴직 혹은 자녀의 독립 등을 이유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과 취약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고령층과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유병선 외 2022; 박민진, 김성아, 2022) 이러한 고리를 끊어 주고 관계 단절 회복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주려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2023년 5월에 해제된 만큼 코로나19 이전, 감염병 확산 시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지지의 변화 추이와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엔데믹 시대에 대비한 사회통합 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㉞

참고문헌

- 박민진, 김성아. (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27-141.
- 백선숙, 조혜영. (2017). 대학생의 공감과 불안,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5), pp. 2841-2852.
- 신은경, 최정아. (2007).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척수손상 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 우울, 장애정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1): 1-290.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pp. 241-269.
- 양미라, 김해숙. (2020). 팬데믹 상황(COVID-19)에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pp. 309-319.
-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왕유준, 오인수, 류신혜. (2021). 중국인 유학생의 코로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상호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2(3), pp. 169-194.
- 유병선, 임주왕, 김주연. (2022). 증가하는 1인가구, 고독사 현황과 대응과제. **복지이슈 FOCUS**, 14, file:///C:/Users/kihasa/Downloads/202209201661761978795.pdf.
- 이중섭, 모지환. (2013).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24(1), 87-117.
-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창순, 이동형. (2019). 성인 진입기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27(2): 149-172.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Ⅳ)**.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상리, 강명주. (2016). 서비스 종업원의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 31(February), 57–83.
- 주유선. (2020). 청년의 사회적 지지. *보건복지포럼*, 6월호, pp. 59–68.
- 최해경, 김정은, 김현. (2020). 사회적 지지와 성인 정신적 장애자녀 기여 요인이 고령부모의 돌봄 경험에 미치는 영향. *미래사회복지연구*, 11(1), 208–236.
- 통계청. (2022). **사회적 고립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jsessionid=N8wD1G6aL4urXizVfkE4o8qp1yaCjp3XAQ3naCT7.node11?clasCd=7&idxCd=4272>에서 2023.07.14. 인출
- Berg-Weger M, Morley JE. (2020).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plications for Gerontological Social Work. *J Nutr Health Aging*. 24(5), pp. 456–458.
- Berkman, L. F., Glass, T.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In L. F. Berkman, I. Kawachi (Eds.), *Social epidemiology*(137–1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ailovskaia, J., Rohmann, E., Bierhoff, H.W. and Schillack, H. and Margraf, J.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social support and Facebook Addiction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76.
- Cohen, S.,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3–2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ohen, S.,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Grey, I., Arora, T., Thomas, J., Saneh, A., Tomhe, P., Abi-Habib, R. (2020).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lee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ychiatry Research*, 293.
- Jay, R.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matter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3), pp. 310–325.
- Jemmott, J. B., Locke, S. E. (1984). Psychosocial factors, immunologic mediation, and human suscepti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How much do we know? *Psychological Bulletin*, 95(1), pp. 78–108.
- Langan, JC., Lavin, R., Wolgast, KA., Veenema, TG. (2017). Education for developing and sustaining a health care workforce for disaster readines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41(2), pp. 118–127.
- Liu C, Huang N, Fu M, Zhang H, Feng XL, Guo J. (2021).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mong General Chinese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isk Manag Healthc Policy*, 14, pp. 1843–1853.
- Szkody, E., Stearns, M., Stanhope, L., McKinney, C. (2021).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during COVID-19. *Fam Process*, 60(3), pp. 1002–1015. DOI: 10.1111/famp.12618. Epub 2020 Nov 21. PMID: 33220082; PMCID: PMC7753728.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pp. 145-159.
- Tindle, R., Hemi, A., Moustafa, A. A. (2022).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flexibility and coping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related stress exposure and psychological distress. *Scientific Reports*, 12, 8688.
- Turner S. B. (2015). Resilience of nurses in the face of disaster.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9(6), pp. 601-604.
DOI: 10.1017/dmp.2015.70.
- Xiao, H., Zhang, Y., Kong, D., Li, S., Yang, N.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leep quality of medical staff treating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January and February 2020 in China. *Medical Science Monitor: International Medical Journal of Experimental and Clinical Research*, 26.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after COVID-19

Kwak, Yoon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n overall decline in social suppor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aking it more difficult to build a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harmony among its member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levels and patterns of social support after COVID-19 and draw implications for promoting social cohesion.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suggest that, firstly, various social service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to build social support systems an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offer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such as counseling. However, since policy needs vary across different levels of social suppo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argeted and customized services.